불교, 단오 품다…용왕재·창포제로 전통 계승

통도사, 5월 31일 용왕재 봉행
도량 순례하며 화재 예방 기원
소금주머니 나눔으로 안전 염원
대원각사는 창포제로 전통 계승
창포물에 머리감기 등 이색 체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단오절을 맞아 사찰마다 전통과 불교가 어우러진 특별한 의례가 펼쳐졌다. 사진은 영축총림 통도사가 단오절을 맞아 5월 31일 경내 설법전에서 용왕재를 봉행하는 모습.

단오절을 맞아 사찰마다 전통과 불교가 어우러진 특별한 의례가 펼쳐졌다. 통도사는 용왕재를 통해 화마로부터 도량을 수호하고, 대원각사는 창포제로 조상의 음덕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단오절을 맞아 5월 31일 경내 설법전에서 용왕재를 봉행하고, 도량의 평안과 화재 예방을 기원했다.

이날 용왕재는 염불작법과 의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 전각과 대중의 안전을 축원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창건설화가 전해지는 구룡지와 도량을 순례하며 화마로부터의 수호를 발원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인사말에서 "통도사의 용왕재는 창건 이래 이어져 온 전통의례로, 물과 불의 조화를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의식"이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잠자리가 물속 유충에서 하늘을 나는 곤충이 되듯, 중생도 변화와 조화를 통해 성불할 수 있다"며 "이 전통의 의미를 널리 공유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통도사는 이날 용왕재를 마친 후 금강계단을 비롯한 주요 전각과 요사채의 기둥 위에 놓인 소금단지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신도들에게는 항화마 진언이 적힌 소금주머니를 나누며 각 가정에서도 화재로부터 안전하길 염원했다.

부산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는 5월 31일 경내 차밭 앞뜰에서 '제2회 장산단오창포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원각사와 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가 공동 주최·주관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생태 보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창포로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며 여름철 건강을 기원했다. 창포꽃잎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 어린이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니 머리가 시원해지고 머릿결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장산습지에서 반딧불이 서식지와 창포의 생육환경을 관찰하며 생태계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대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은 "예로부터 단오에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며 여름철 건강을 기원하고 창포의 향기와 생명력을 통해 액운을 물리치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며 "단오절의 조상공경과 생명존중의 가치관은 불교의 천도재나 수륙재, 그리고 방생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같다. 대원각사는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켜 후대에 잘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여성불자회, 청소년 장학금 전달

중 · 고등학생 17명에 650만원
암도 · 혜총 대종사 특별 법문도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가 5월 29일 부산 포교사단 지역단 회의실에서 '2025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중·고등학생 17명에게 총 6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부산여성불자회는 중학생 11명에게 각 30만원, 고등학생 6명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생은 금정중, 해동중, 부산정보고, 브니엘고, 중산고 등 부산 지역 10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선발됐다.

전달식에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와 혜총 대종사,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을 비롯해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초대 회장, 류영남 전 회장, 부산여성불자회 임원단 및 회원,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암도 대종사와 혜총 대종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법문을 통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분남 회장은 인사말에서 "학생 여러분이 공부 중에 용기를 잃지 말고 목표를 세워 꿋꿋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부산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

6월 1일, 서면 영광도서 9층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와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이 6월 1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백일장의 결과를 축하하고, 청소년들이 생명에 대해 품은 생각과 감성을 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백일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와 산문 부문 중 자유롭게 선택 후 참여했다.

이날 시상식 최고상인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김도희(해동중), 이사무엘(금정중), 최윤서(영산고), 김서빈(부산디지털고) 학생에게 각각 수여됐다.〈사진〉

본부장 심산 스님은 "이 백일장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파시조문학상 대상에 김소해 시인

'서나 백년 기다릴게' 선정
6월 21일 서운암서 시상식



시조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감각을 담아내는 성파시조문학상이 42회를 맞아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대상은 김소해〈사진〉 시인의 시조집 〈서너 백년 기다릴게〉가 선정됐다.

김소해 시인은 1983년 〈현대시조〉, 1988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나왔으며, 〈투승점을 찍다〉, 〈대장장이 딸〉, 〈서너 백년 기다릴게〉 등 여섯 권의 시조집을 발표했다. 한국시조시인협회상 본상,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본상, 올해의 시조집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권익옹호위원과 오늘의시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파시조문학상에는 김정수 시인과 이선중 시인이, 성파시조평론상에는 김태경 평론가가, 성파시조문학작가상은 서동운 시인과 서은숙 시인이 각각 선정됐다.

제42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6월 21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개최된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1000만원, 본상 각 500만원, 평론상 500만원, 작가상 각 200만원 등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성파시조문학상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뜻을 이어 제정된 문학상으로, 시조의 현대적 계승과 창작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민추본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

5월 29~31일, 6개 강좌 구성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견학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5월 29일 부산 안국선원 시원암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아카데미는 5월 31일까지 3일간, 민추본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정관 스님)와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운영되며, 남북불교 교류를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계의 평화 역량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추본 부산경남본부장 정관 스님은 "통일은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숙제이며, 남북 교류는 향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불교계의 평화통일 역량이 강화되고, 교류의 씨앗이 될 인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교육은 △남북교류협력 경험과 미래비전 △북한 농업과 기후위기 △북한 보건의료 동향 △남북 민간교류 전망 등 총 6개 강좌로 구성됐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견학하며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체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우리말 금강경 독송법회'

6월 20일, 대광명사서 제1회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하안거를 맞아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대광명사에서 '을사년 재가 하안거 제1회 우리말 금강경 독송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스님들과 함께 우리말로 금강경을 독송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심과 정진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금강경 독송 외에도 반야심경 독송, 명상 강의, 신행 다짐 등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하안거 법회를 통해 재가불자들이 일상 속에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불법을 실천하는 힘을 함께 키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불자는 6월 9일까지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팩스(051-501-9333) 또는 이메일(bsbuddha10@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좋은 조건에 베테랑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1차 | 10월23일 출발~11월02일 도착(11일 일정)
2차 | 11월28일 출발~12월07일 도착(10일 일정)
3차 | 12월05일 출발~12월14일 도착(10일 일정)
▶ 일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9월10일~9월15일
인천-남경-구화산-항주-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9월11일 출발~9월20일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진신사리)-맥적산석굴-난주 병령사석굴-장액 대불사-칠채산-가욕관-돈황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일정 : 9월13일~9월28일(16일간)
▶ 일정 :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13일~20일(6박8일)
■ 일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